

바람직한 정치질서 탐구한 정치철학자들

이상적 정치원리와 더 나은 정치질서 제시...
동양정치철학 다룬 책은 상대적으로 적어

정치철학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정치상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정치철학서들은 이상적 정치 원리를 추구하는 것과 현실의 정치체도를 비교해 좀더 나은 정치질서를 탐구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동서양 정치철학을 가로지르는 주제들은 권력과 지배, 정의와 기회균등,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등으로 요약된다.

정치철학은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정치란 실제로 어떤 것인가'라는 정치학의 경험적 연구와 '바람직한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정치학의 규범적 연구가 그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정치상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철학의 본령임은 물론이다.

정치학의 규범적 연구도 두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 즉, '이상적인 정치질서와 원리를 추구하는 것'과 '현실의 정치체도를 비교해 더 나은 형태의 정치질서를 탐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플라톤의 이상적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적 접근이 두 경향의 고전적 사례로 손꼽힌다. 국내에서 출간된 정치철학서들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대별해볼 수 있다.

왕도적 치자상 제시한 플라톤

최근 번역된 플라톤의 《정치기》(김태경, 한길사)는 현실적인 정치가가 아니라 원론적 의미의 '치자상' (治者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정치원리 추구'의 원형적 저술이다. '참된 치자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밝힌 이 책에서 플라톤은 법을 통한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혜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것을 지시하는 왕도적(王道的) 치자의 형상을 제시한다.

정치철학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는 '정의'의 문제다. 플라톤의 《국가》(박종현, 서광사)와 《논어》의 '정자정야' (政者正也), 맹자의 '왕도론' 등에서 정의가 논의의 중심인 것이 이를 입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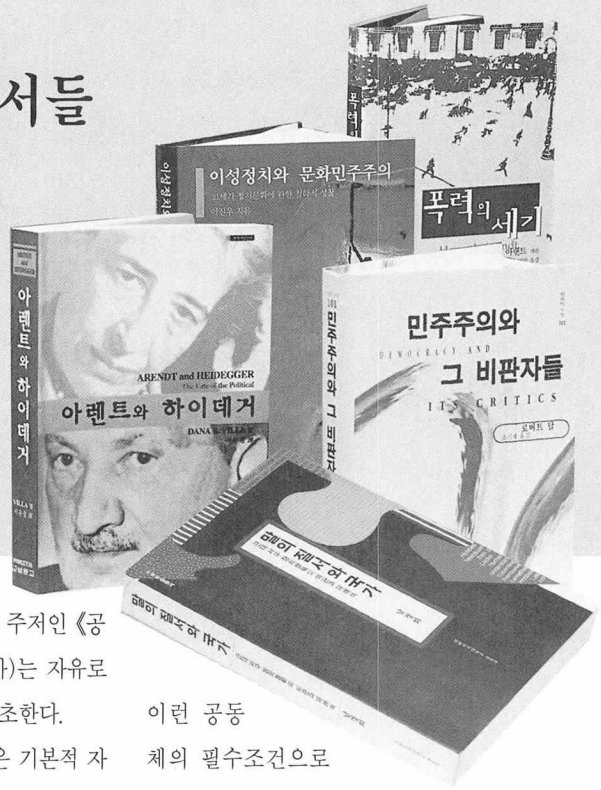
다. 존 롤즈는 현대 정의론의 체계를 확립한 철학자로 유명하다. 그의 주저인 《공정으로서의 정의》(황경식 외, 서광사)는 자유로 우면서 합리적인 사회구성원리를 정조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가능한 한 폭넓은 기본적 자유를 각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제1원리와,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범위에서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제2원리로 구성된다. 이 원리에 의거해 입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적 재분배가 정당화된다.

정의의 두 원칙을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적용한 책이 《정치적 자유주의》(장동진, 동명사)다. 롤즈는 '합리성'과 '합당성'을 구분한다. 합리성은 개인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합당성은 정치사회의 여러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논리다. 그는 합리성이 합당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결론으로 개인성과 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상적 정치원리를 제시한 국내학자로는 남경희(이화여대 철학과), 이진우(계명대 철학과), 함재봉(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남교수는 《말의 질서와 국가》(이화여대출판부)와 《이성과 정치존재론》(문학과지성사)에서 인간의 정치성과 언어능력의 연관성에 주목해 이상적 정치공동체를 구상한다.

《...국가》가 인간의 언어에는 공동체적인 지향성과 자유의 논리가 내재해 있음을 논증한다면, 《...정치존재론》은 인간이 공동체적인 동물이며



이런 공동

체의 필수조건으로

서 언어의 자유를 지적한다.

두 저서를 통해 남교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사상 넘어설 유교 전통의 재해석

이진우 교수의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문예출판사)과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한길사)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정치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이교수의 정치철학은 한마디로 '이성정치'로 요약된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책임의 정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정치를 말한다.

후설 현상학과 현대 정치학을 접목시킨 김홍우 교수(서울대 정치학과)의 《현상학과 정치철학》(문학과지성사)은 서양 정치이론의 현실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교수는 바람직한 정치세계의 구성원칙으로서 공동세계의 우선성, 구성원 모두의 자질과 능력의 종합, 섬세성의 중요성 등을 꼽는다.

'한국 정치담론의 모색'을 부제로 단 함재봉 교수의 《탈근대와 유교》(나남출판)는 서양 근대 정치사상의 한계를 유교의 전통을 재해석함으로써 극복하려 한다. 함교수에 따르면, 근대사상의

모순은 인간관계의 해체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인식했던 유교사상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현실의 정치제도를 비교해 더 나은 형태의 정치질서를 탐구하는 정치철학은 자유주의·민주주의·보수주의·사회주의 등 각 정치이념의 특성과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내 출판계에서 민주주의론이 주종을 이룬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현대 정치이론의 대가인 로버트 A. 달의 저서만 10여권이 번역돼 나와 있다.

달의 최근작인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조기제, 문학과지성사)은 그의 사상적 요체가 집약된 주저로 평가된다.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옹호해온 달은 이 책에서 공격 경쟁이 자유화되고 참여가 확대되는 '다우정적 민주주의(폴리아키)'를 주장한다. 폴리아키는 역사상 실재했던 어떤 정치제도보다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융합

노르베르트 보비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황주홍, 문학과지성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마르크스의 비판정신을 계승한 보비오는 '자유사회주의' '다원사회주의'를 제안한다. 자유민주주의가 견지해온 개인주의적 신조와 노선을 바탕으로 분배정의론을 수용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결합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현대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정교화는 강정인 교수(서강대 정외과)의 일관된 과제였다. 강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문학과지성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형식적으로는 참정권을 보장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정치적 무관심과 비참여를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정보 사회론자'들의 낙관적인 정치전망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보수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논의로는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R. 니스벳 외, 강정인 외, 문학과지성사), 《보수주의》(이봉희, 민음사) 등이 나와 있다. 앞의 책은 순수한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필연성을 신봉한 버크의 정치사상을

살폈다.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분석한 뒤의 책은 미국 역사를 관통해온 보수주의 철학의 전통을 재조명했다.

20세기 정치철학의 악몽 가운데 하나는 전체주의의 문제였다. 인간의 맹목성과 파괴성을 극단화시킨 정치현상으로서 전체주의는 한나 아렌트에 의해 해부됐다. 《인간의 조건》(이진우·태정호, 한길사)에서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인간의 본질마저 파괴한다고 전제하고, 세계와 인간을 도구화한 과학적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나온 두권의 책은 아렌트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아렌트의 정치사상 에세이 《폭력의 세기》(김정한, 이후)는 폭력의 확산과 그 수단의 발전이 20세기 진보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남은 것은 무능한 권력이라는 역설을 파헤친다. 아렌트 정치철학의 탈근대성을 부각시킨 《아렌트와 하이데거》(다나 빌라, 서유경, 교보문고)도 나와 있다.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 조명

최근 정치철학의 새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생태주의다.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 사상을 조명한 앤드루 돕슨의 《녹색정치사상》(정용화, 민음사)은 기술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연세계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촉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회전략, 공동체전략, 계급적 헤게모니 전략 등을 검토해 눈길을 끈다.

동서양의 정치사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책들도 여럿 나와 있다. 고대 도시국가 이론부터 현대 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까지 정치이론의 역사를 추적한 《정치사상사》(조지 세이빈·토머스 솔슨, 성유보·차남희, 한길사), 플라톤부터 한나 아렌트까지 사상이 중심으로 엮은 《서양 정치사상》(브라이언 레드헤드 엮음, 황주홍, 문학과지성사), 인간 자아의식의 각성에 따라 중국 정치사상의 발전을 살핀 《중국 고대 정치사상》(유태화, 노승현, 예문서원), 왕양명의 정치사상을 탐구한 《동양정치사상》(정차근, 평민사)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치철학서들은 서구 편향성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양의 정치사상을 다룬 책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반성이 인문학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 정치철학의 영역에서도 탈근대성은 지향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정치철학은 미시적 일상생활에 편재한 권력과 지배의 문제, 디지털 시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 등으로 시야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 박천홍 기자

정치철학 관련서들

| 책이름 | 저자 | 역자 | 출판사 |
|-----------------|--------------|---------|----------|
| 공화국의 위기 | 한나 아렌트 | 김동식 | 두레 |
| 근대 서양 정치사상(상·하) | 데이비드 하트 외 엮음 | 김연각 | 인간사랑 |
| 다원주의의 딜레마 | 로버트 A. 달 | 이만희/신윤환 | 인간사랑/푸른산 |
|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 김영국 외 | | 서울대출판부 |
| 마키아벨리와 국가이성 | 진원숙 | | 신서원 |
| 민주주의 이론 서설 | 로버트 A. 달 | 김용호 | 법문사 |
| 숲으로 보는 정치학 | 케네스 미노그 | 박정원 | 좋은날 |
|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로버트 노직 | 남경희 | 문학과지성사 |
|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 한나 아렌트 | 권영빈 | 문학과지성사 |
| 전통 중국 정치사상사 | 주일요 | 정귀화 | 신지서원 |
| 정치철학 | 이종은 | | 까치 |
| 중국 정치사상사 | 소공권 | 최 명·손문호 | 서울대출판부 |
| 폴리아키 | 로버트 A. 달 | 최호준·박신영 | 거목 |
| 폴리테이아 | 자클린 보르드 | 나정원 | 아르케 |
| 혁명이란 무엇인가 | 한나 아렌트 | 이종호 | 울성사 |
| 한국 정치사상 | 정연선 | | 송실대출판부 |
| 현대 정치분석론 | 로버트 A. 달 | 진덕규 | 새글사 |
| 현대 정치의 분석 | 로버트 A. 달 | 진덕규 | 학문과사상사 |